

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관련 참고자료

2006. 2. 21(화), 통일부

1. 개 요

-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월 2일(목)과 3일(금),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- 이번 회담에서는 △서해상 우발충돌방지 조치 개선방안 △서해상 공동어로 수역 설정 △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등이 협의될 것임.

2. 추진경위

- 남과 북은 지난 15차, 16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,
 - 17차 장관급회담(05.12.16)에서도 “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”하기로 합의하였음.
- 지난 2월 3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에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,
 -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협의를 통해,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3월 2일과 3일,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.

3. 장성급군사회담 경과

- 남북은 지난 '04년 두 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「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」(04.6.4)를 체결하였음.

○ 동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《 6.4 합의서 주요내용 》

<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>

- ① 함정간 대치방지를 위한 철저한 통제
- ② 상대측 함정과 민간선박에 대한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
- ③ 쌍방 함정간 교신시 국제상선공통망 활용
- ④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 제정
- ⑤ 제3국 불법조업선박의 동향 관련 정보교환
- ⑥ '04.8.15까지 서해통신연락소 설치

<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>

- ① '04.6.15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활동 중지
- ② '04.8.15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
- ③ 단계별 완료결과 상대측 통보 및 확인
- ④ 단계별 완료결과를 언론에 공개
- ⑤ 향후 선전수단 설치 및 선전활동 재개 금지

○ '04.7월 이후 남북대화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(6.4 합의서)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나

- '05.7월 군사실무회담이 재개되어 3단계에 걸친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최종확인('05.8.12)하였으며,
-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 보장을 위해 서해 통신연락소를 개설·운영('05.8.13)하고 있음.

4.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의의

○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군사 당국자회담의 개최를 위해 북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음.

-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하게 된 것임.
- 이번 장성급군사회담은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공동번영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군사적 긴장과 대치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음.
- 또한 개성공단 건설, 철도·도로 연결, 금강산관광 등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
 - 그동안 미진했던 군사분야 진전에 추동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
 - 평화와 협력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.

붙임 : 주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현황 1부. ㉠

《 주요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현황 》

1. 제1차 국방장관회담(2000.9.25-26, 제주)

○ 쌍방 대표단

- 우리측 : 조선태(국방장관, 수석대표), 김희상(국방부장과 보좌관), 김국헌(국방부 국장), 송민순(외교통상부 국장), 이인영(합참 과장)
- 북 측 : 김일천(인민무력부장, 단장), 박승위(총참모부 부총참모장), 김혁주(인민무력부 보좌관), 로승일(인민무력부 대좌), 유영철(판문점 대표부 대좌)

○ 주요 합의내용

- 6.15 공동선언 이행 노력 및 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문제 해결
-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
- 철도·도로 연결 공사를 위한 인원·차량 등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및 안전보장
-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 설정문제를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

2.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(2004.5.26, 금강산)

○ 쌍방 대표단

- 우리측 : 박전희(합참 해군 주사, 수석대표), 임이수(해군대령), 배광복(통일부 과장), 문성묵(국방부, 대령), 정영도(군정위, 대령)
- 북 측 : 안익산(인민무력부 소장, 단장), 유영철(인민무력부 대좌), 김산남(인민무력부 대좌), 배경삼(인민무력부 상좌), 박기용(인민무력부 상좌)

○ 주요 협의내용

-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, 군사분계선지역 선전활동 및 선전수단 제거 문제 협의

3.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(2004.6.3-4, 설악산)

○ 쌍방 대표단

-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과 동일

○ 주요 합의내용

- 「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」 체결('04.6.4)